

순창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70세 이상...지원 조례 제정 중위소득 100% 이하, 100만원

'노인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순창군이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전북지역 최초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관절 수술비는 국가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하다.

특히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순창군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이다.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

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전북과 전남, 광주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됐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남원시, 소요비용 80% 이내

남원시가 지역 기업의 근무환경 향상과 장기근속 도모 등을 위해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남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를 기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진> 올해 투입 예산은 2억원(시비)이다. 시는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했고, 관내 제조업체 16개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60명(60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숙사 계약은 기업 명의로 이뤄진다. 기숙사 1실 당 최대 월 30만원, 기업 당 최대 10실 이내로 지원된다. 6개월 미만 신규 전입 노동자에게는 3명 당 1실(기업 당 5실 이내)이 추가 지원된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관내 기업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

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의회, 전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순회 간담회



지난 1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전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순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 지역 내 지방의회를 돌며 지역현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협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순창군의회 제공>

군산시 다음달 18일까지 해양수산사업 신청

군산시가 다음달 18일까지 '2023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물산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추진돼 수산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분야 정부지원사업 등이다.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시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심의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라북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어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 가공 및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민주도형 어촌관광과 연계한 혁신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산림자원·숲 미래가치 증진 나선다

109억원 들여 모로비리공원 조성 조림 47ha·공익숲가꾸기 1030ha

고창군이 2022년을 산림자원과 숲의 미래가치를 증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 한 해동안 모로비리공원 조성 사업 등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숲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산림 행정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주목을 끄는 사업은 고창읍 내 도시공원을 구축하는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09억원에 달하고 면적 13만㎡에 체육시설과 인공암벽장을 더해 자작나무 테마숲, 소나무 테마숲, 모로비리정원, 숲길, 물놀이장, 주차장 등을 만든다. 현재 숲길 조성을 끝냈고 올 상반기내 공원 계획에 따른 가시적 공원 전경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산책로인 방장산 등산로와 성산 등산로, 전불 마실길, 모로비리공원 숲길 등에 비상호출기와 제세동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산면 운곡읍지 상단에는 산림휴양체험단지인



모로비리공원 조성 조감도.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을 마련한다. 숙박시설은 물론 방문자센터, 산림치유시설, 산책로, 부대시설 등을 조성해 산림문화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휴양림 맞은편에는 '운곡 산림레포츠파크'가 들어선다. 슬라이드형 놀이시설과 쥘라인, 클라이밍 등 관광 및 산림 부분의 연계를 통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채운다. 군은 또 올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공익 및 경제수 조림 47ha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030ha를 실시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외국인 가정도 아동 보육료 지원

전북도내 최초...매월 28만원

정읍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만9000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수소차 구매 지원 72대...1대당 3650만원

익산시가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올해 26억원을 편성해 친환경 수소자동차 1대당 3650만원, 72대 분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각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판매사를 방문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차량 구매 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으로 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